

## '온비드'에 국방부 전용관 개설

기사입력 2019. 07. 04 17:46

### 입찰 참가자 검색 편의 제공


국방시설본부는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가 운영하는 온라인 구매 시스템 '온비드(On-bid)'에 5일부터 국방부 전용관이 개설·운영된다고 밝혔다.

국방시설본부는 "온비드 시스템에 전용관을 개설하기 전에는 입찰 참가자들이 국방부 국유 재산 매각·임대 및 불용품 매각 물건을 일일이 검색하거나 주무부서로 문의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전용관 개설로 입찰 참가자들이 국방부 물건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방부는 온비드 시스템에 1805건을 입찰 공고했으며, 446억 원 규모의 매각·임대가 이뤄졌다. 국방부 전체 거래 중 국방시설본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90%(1607건, 401억 원)에 달한다. 올해에는 온비드 입찰로 1조956억 원 규모의 정보사령부 서초동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국고 세입 증대에 기여했다. 윤병노 기자

윤병노 기자 <trylover@dema.mil.kr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프린트 하기

취소하기



HOME > 뉴스 > CM/ENG

# 국방시설본부, 온비드 시스템내 '국방부 전용관' 개설

하종숙기자 | 승인 2019.07.04 09:58

7월 5일부터 본격 가동... 입찰참가자 편의 증진 기여

### 김재봉 본부장 "국방부 국유재산 매각, 임대 및 불용품 매각 거래 활발 기대"



온비드 시스템내 '국방부 전용관' 화면.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방시설본부(본부장 준장 김재봉)가 5일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공매 시스템(On-bid)내 '국방부 전용관' 개설·운영, 입찰참가자의 편의 증진에 나선다.

국방시설본부는 ‘국방부 전용관’ 개설 전에는 입찰참가자들이 국방부 국유재산 매각.임대물건 및 불용품 매각물건을 일일이 검색하거나 주무부서로 문의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국방부 전용관’ 개설로 입찰참가자들이 국방부 물건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설하는 ‘국방부 전용관’은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에서 지난 2월, 캠프에 요청하고 이후 수차례 회의와 실무협의, 모의테스트 등을 통해 이뤄낸 산물이다.

지난 한해 국방부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1,805건 입찰공고, 446억원 규모의 매각, 임대가 이뤄졌고 국방부 전체 거래 중 국방시설본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90%(1,607건, 401억원)이다.

특히 금년에는 온비드 입찰로 정보사 서초동 부지를 매각(1조956억원)함으로써 국고 세입 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다.

국방시설본부장 김재봉 준장은 “‘국방부 전용관’ 개설로 입찰참가자가 쉽게 국방부 물건에 접근할 수 있어 국방부 국유재산 매각.임대와 불용품 매각 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운용 간 제기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사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종숙 기자

# 캠코 온비드 입찰시스템 내 '국방부 전용관' 개설한다

기사입력 2019-07-04 15:02:45.

## 국방부 국유재산 구매참가자 편의성 높이기로

국방시설본부는 5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구매시스템(On-bid) 내 '국방부 전용관'을 개설·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 전용관 개설 전에는 입찰참가자들이 국방부 국유재산 매각, 임대물건, 불용품 매각물건을 일일이 검색하거나 주무부서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전용관 개설로 입찰참가자들이 국방부 물건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전용관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 2월 캠코에 개설을 요청하고, 이후 수차례 회의와 실무협의, 모의테스트 등을 통해 이뤄낸 결과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국방부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1805건 입찰공고, 446억원 규모의 매각·임대를 진행했고, 국방부 전체 거래 중 국방시설본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1607건·401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온비드 입찰로 정보사 서초동 부지를 매각(1조956억원)하는 등 국고 세입 증대에 기여한 바 있다.

국방시설본부 관계자는 "국방부 전용관을 개설함으로써 입찰참가자가 보다 쉽게 국방부 물건에 접근할 수 있어 국방부 국유재산 매각·임대와 불용품 매각 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운용시 제기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 증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우병기자 mjver@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콘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